

과학기술로 본 한국사, 세계에 전하다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과학과 기술의 한국사' 5개 강좌 1차 개설... K-MOOC 통해 서비스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문만용 교수)가 과학과 기술이라는 창으로 한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는 온라인 강좌 시리즈를 개설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강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K-학술확산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내 K-학술확산연구소센터가 주도해 기획·제작했다.

현재 1차 년도 5개 강좌가 개설돼 이미 K-MOOC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2차년도 강좌도 영상 촬영을 마쳤다. 각 강좌는 약 500~560분 분량의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한국어는 물론 영어·제2외국어 자막을 지원해 국내외 수요자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되고 있는 1차 년도 강좌는 '천지인의 한국학'을 주제로 △천문과 역산, △지도와 지리, △병, 약, 몸의 한국사, △천지인의 자연학에서 과학으로,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등을 다룬다.

또한 내년 2차 년도에는 '한국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혁명의 구조,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한국 기업의 기술발전사, △현대의학사, △한국 근대 도시 탐방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모든 강좌에는 한국어와 영어 자막이 붙고, 추가로 제2 외국어 자막도 붙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유학생들도 시청 가능하다.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가 과학과 기술이라는 창으로 한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는 온라인 강좌 시리즈를 개설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작된 강좌들의 소개는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scholarsck>)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만용 소장은 "과학과 기술은 단지 실용적 지식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며 "이번 강좌는 과학기술을 통해 엮인 한국사라는 점에서 한국학의 새 지평을 여는 시도이자 국제사회에 한

국의 과학문명을 널리 알리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는 2015년 설립 이후 2023년까지 총 30권의 한국어 총서 '한국의 과학과 문명'을 출간했다. 현재는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사를 통해 영어 총서 5권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고 강선영 명인 태평무 세계 만난다

국립무형유산원, '명인오마주 - 무용극, 강선영' 25~26일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과 26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수마루 대공연장에서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였던 고(故) 강선영 명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무용극으로 표현한 공연 '명인오마주 - 무용극, 강선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강선영 명인의 소녀 시절, 조선음악연구소 시기, 예술가로서의 고난과 성장, 그리고 유산으로 남은 태평무의 세계를 5개의 장으로 구성, 강선영 명인이 남긴 전통무용의 미학과 인간적 여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태평무, 승무, 살풀이춤, 무당춤 등 강선영 명인의 대표작들이 극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되며, 무용·연기·소리의 융합을 통해 전통예술의 생명력을 생생히 전달한다.

주인공 '강선영' 역은 그의 제자이자 현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양성숙 보유자가 맡았으며, 아역은 무용동무로 수상자 차은서, 청춘기 강선영 역은 정은혜 배우가 맡아 세 시기를 넘나드는 복합적 인물을 그려낸다. 여기에 30여 명의 '강선영출전승원' 회원들과 국립창극단 서정금 수석단원,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고준석 부수석, 제14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명창부 대상 수상자 이치현 등의 국악계 주요 인물들이 함께 출연해 생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



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은 16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박물관, 우리가 기록한 문화유산 전북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은 14일 2025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Heritage Archiving-우리가 기록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의 기록물을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촬영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며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는 14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국립군산대 박물관 2층 '갤러리 잇 디'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전시장에서는 학생들이 촬영한 다양한 사진 작품이 전시되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인기상' 스티커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과 함께 전시 확인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작은 사진 및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오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전시 공간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진안중평국 '바람긋 한마당' 성료

전통 굿판·체합·대동한마당 등 진행

진안군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마이산 남부 명령각 앞 부부시비 광장에서 '2025 바람긋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이 주최하고 전라좌도 진안중평국보존회(회장 이승철)가 주관했으며, 진안중평국의 전통과 생명력을 되살리고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중평국은 예로부터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던 본질과 생명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이날도 그 본래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 마이산 자락을 울리는 굿판이 펼쳐졌다.

행사는 마당관 코스로 시작해 흥을 돋웠다. 이어 팽과리, 징, 북, 장구가 어우러진 전라좌도의 장단 속에서 연희자들의 발놀림과 손짓이 무대를 가득 채웠으며, 이어진 기놀이와 개인 놀이에서는 각 악기의 특성을 살린 독무대가 펼쳐졌다. 높이 치켜든 농기(農旗)는 하늘을 가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엄한 장면을 연출했다.



관객 참여 프로그램인 전통 민속놀이 '달기치기'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놀이는 액운을 쫓고 풍요를 기원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축제의 마지막은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진 '대동한마당'이었다. 무대 위의 경계는 사라지고,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은 원 안에서 같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흥겨운 농악 가락 속에서 함께 어울린 이 장면은 공동체의 정신을 되살리는 축제의 절정이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문화재단, 7세 아동 대상 '한복 졸업빔 캠페인' 추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7세 아동 대상 '한복 졸업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유아 교육기관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졸업을 앞둔 7세 아동들에게 유아용 한복을 대여함으로써, 한복 생활문화의 의미와 전통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재단은 졸업이라는 인생 첫 의례를 한복과 함께 맞이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긍정적인 한복 경험을 심어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한복은 유아 전용 맞춤 제작으로 전통미는 물론, 편안한 착용감까지 갖췄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한복 졸업빔 캠페인은 유아기부터 전통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한복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복 졸업빔 캠페인'은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



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동각



내아